

四象醫學 臟腑理論의 特徵에 對한 考察

김정호* · 송정모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on the Theory of JangBu(臟腑)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im Jeong-Ho*·Song Jeong-Mo

Dept.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After studying the theory of JangBu(臟腑), that is a physiolog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 author could draw a conclusion as these.

1. The basic though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emphatic on the human beings itself unlike the idea of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that accentuate the universe.(The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has a concept that the human beings follows the order of universe, bu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has a different idea that human beings has the free will to the universe and newly comprehend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 beings and universe.)
2. Like the preceding, the theory of JangBu(臟腑), the physiolog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based on the autonomic mechanisms of human body itself.
3. The medical philosoph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Sasang(四象), that is Sa(事), Sim(心), Sin(身) and Mul(物). This Sasang is a classification of universe include human beings.(Sa(事) is event, Sim(心) is mind, Sin(身) is body, and Mul(物) is things. these four elements express the universe and human.)
4. The JangBu(臟腑) theor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regard mind condition as important. The mind condition is divided into two factors. The one is Seong(性) the other is Jeong(情). The Seong(性) is an attitude toward the world, and the Jeong(情) is response to the stimulation from the world.
5. By the actions of Seong(性) and Jeong(情), the human body has different JangBu(臟腑) function, so the human body can be grouped in four constitutions.
6. Because of emphasis on mind condition, the Sasang JangBu(臟腑) theory has activism of human beings itself.
7. This activism or practical philosophy of Sasang JangBu(臟腑) theory, that is a physiolog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gave birth to ethics or morality in Medical philosophy, that the human practice of ethics or morality bring a health and well being of human body.

Key word: JangBu(臟腑), Seong(性), Jeong(情), Sasang(四象 : Sa(事), Sim(心), Sin(身) and Mul(物))

I. 緒論

臟腑는 韓醫學의 臟과 腑를 일컫는 말로서 韓醫學 理論의 根幹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의 하나이다. 既存의 內經醫學¹⁾의 觀點에서 臟腑는 藏象

접수일 2004년 3월 29일; 승인일 2004년 4월 15일
* 교신저자 : 김 정 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번지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82-63-220-8415 E-mail: sasangdr@naver.com

1)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2;4(1):pp.5-28. “既存의 證治醫學은 『內經』보다 훨씬 발전된 學理를 갖추고 있으

論이라는 理論의 體系로 運用되고 있다. 藏象論은 陰陽五行이라는 哲學的 理論을 통해 宇宙와 萬物の 天人相應의 존재원리에 입각하여 五臟과 六腑, 나아가 韓醫學의인 人體를 일괄적으로 설명해내고 있으며 生理, 病理理論과 臨床 運用까지 제시하는 理論이다.

이러한 臟腑의 개념은 西洋醫學의 臟器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韓醫學에 있어서의 臟과 腑는 단순한 해부학적 단위가 아니고 生理와 病理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표면 해부(Surface Anatomy)를 기반으로 한 臟器라는 개념에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生理, 病理의 개념은 없다. 어원적으로 ‘臟’은 形成字로 ‘肉’자와 ‘藏’자가 합쳐진 단어이고 ‘腑’자는 ‘肉’자와 ‘府’자가 합쳐진 단어이다. 文字의 의미는 각각 ‘몸 속의 내장’과 ‘창고’라는 뜻이며, 藏象이라는 개념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흔히 이러한 臟과 腑의 번역어로서 ‘Viscera’와 ‘Bowels’가 사용되는데 西洋醫學에 있어 Viscera는 라틴어 어원인 viscus에서 온 것으로 viscus는 ‘몸의 안쪽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²⁾ 따라서 語義上으로는 臟과 腑를 함께 지칭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그리고 흔히 ‘腑’의 번역어로 활용되는 Bowels는 라틴어 어원인 sausage에서 온 것으로腸의 모양을 본 딴 것으로 大小腸의 뜻을 가지고 있다.³⁾ ‘Organ’은 몸의 내부 기능 기관을 지칭하는 말이며 가장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리스 어원인 organon에서 왔으며 이는 도구(tool), 일(work)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⁴⁾

四象醫學에 있어서도 臟腑라는 개념은 理論的, 臨床的으로 매우 중요한 根幹을 이루고 있다. 東武公은 「性命論」에서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를 제

시하고 性命論의 人間을 정의하였으며 「四端論」을 통해 人稟臟理의 大小 관계로 四象人을 규정하고 哀怒喜樂의 性情과 肺脾肝腎의 관련성을 밝혔으며 「擴充論」을 통해 性情과 臟腑大小, 生理 病理의 관련성을 설명하였고, 이어 「臟腑論」을 통해 肺脾肝腎의 四臟構造와 四焦 등의 체계를 설정하고 水穀과 氣液의 대사를 통한 四象醫學의 人體의 生理 運用 方式을 제시하였다.⁵⁾

이러한 四象醫學은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道敎에 기반을 두고 있는 內經醫學과 달리 儒學的 人間 哲學에서 탄생한 四象醫學은 陰陽五行과 天人相應의 원리에 입각한 內經醫學과 달리 人間을 중심으로 하는 四象哲學의 本體論에 입각한 四象醫學의 臟腑論은 事心身物이라는 本體的 構造를 통해 耳目鼻口, 肺脾肝腎, 頤臆臍腹, 頭肩腰臀과 같이 현상적 기능구조⁶⁾로 구분하여 生理的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四象醫學의 臟腑理論은 事心身物의 四物類的 要約精神 아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道敎를 기반으로 한 內經醫學의 宇宙觀과는 다른 人間의 自律意志와 自律行爲를 중심으로 宇宙의 현상을 파악하려는 人間 中心的 宇宙觀에 입각한 醫學體系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著者は 이러한 四象醫學의 原理的 背景에 입각하여 既存의 藏象論과 다른 四象醫學 臟腑理論의 특징을 살펴본 바 약간의 지견이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研究對象

1) 本 研究는 『東醫壽世保元』(이하 壽世保元이라 칭함) 辛丑本과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이하 草本卷이라 칭함), 『格致藥』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기타 다수의 관련서적을 참고하였다.

나 基本 原理는 內經의 原形을 답습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內經醫學’이라 칭하기로 한다”

2) Kenneth N. Anderson 외. Mosby's dictionary 4th Mosby United states of America. 1990. p.1652. "The internal organs enclosed within a body cavity"

3) Kenneth N. Anderson 외. 上揭書. p. 214. "The portion of the alimentary canal extending from pyloric opening of the stomach to the anus"

4) Kenneth N. Anderson 외. 上揭書. p.1116. "A structural part of system of the body that is composed of tissues and cells that enable it th perform a particular function"

5)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敎室. 四象醫學. 集文堂. 1998. p.91.

6) 上揭書. p.91.

2. 研究方法

本 研究는 『草本卷』과 『壽世保元』, 『格致彙』를 중심으로 四象 臟腑理論의 형성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그것이 가지는 既存의 韓醫學에서의 藏象論과의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四象醫學의 臟腑理論이 가지는 韓醫學的 價値에 대해 살펴보았다.

1) 臟腑論의 理論的 背景이 되는 人間觀과 本體觀에 대하여 既存의 內經醫學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 四象 臟腑論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제반 개념과, 臟腑의 機能과 構造, 基本 構成物質과 臟腑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3) 『格致彙』, 『草本卷』, 『壽世保元』 등에서 四象 臟腑理論의 형성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4) 이러한 과정을 통해 四象醫學의 臟腑理論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의 韓醫學的 意味와 價値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Ⅲ. 本 論

1. 四象醫學의 人間觀

1) 內經醫學의 宇宙觀과 人間觀

自然科學에 基礎하고 있는 西洋醫學과 달리 東洋哲學思想에 基本을 두고 있는⁷⁾ 既存의 內經醫學은 ‘天人相應’의 觀點과 ‘陰陽五行’의 原理를 그 根幹으로 한다. 天人相應이란 宇宙의 變化法則에 人間の 生命 활동이 그 生理, 病理的 運用을 같이 한다는 思想이며 陰陽五行은 ‘陰陽論’과 ‘五行論’이 결합된 것으로서 東洋思想과 哲學의 근간이 되는 理論이다. 人間은 宇宙의 一部分이며 자연계의 變化 규율에 따라 生命 活動을 영위하게 되며 나아가 統一性과 整體性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內經醫學에 있어 醫學的 理論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黃帝內經素問寶命全形論』⁸⁾의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과 『黃帝內經素

問生氣通天論』⁹⁾의 “生之本 本于陰陽 天地之間 六合之內 其氣九州 九竅 五臟 十二節 皆通乎天氣”에서 볼 수 있듯이 宇宙의 變化규율이 陰陽五行이므로 宇宙 자연의 질서와 原理인 陰陽五行을 人體에 그대로 적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內經醫學의 基本적 태도이다.

근래에 이르러 이러한 天人相應은 內經醫學을 基반으로 한 中醫學에서 整體觀念¹⁰⁾이라는 용어로 확대되어 쓰이는데 이는 人體가 하나의 有機體인 동시에 外部의 自然環境과 밀접한 不可分의 關係를 갖고 있다고 하는 개념이다.

『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¹¹⁾에서 “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라 하고 “賊風數至 暴雨數起 天地四時不相保 與道相失 則未央絕滅”이라 하였으며, 『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¹²⁾에서는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라 하였고, 『靈樞五癰津液別論』¹³⁾에서는 “天暑衣厚則腠理開 故汗出 天寒則腠理閉 … 水下流於膀胱則爲溺”라 하였는 바, 여기서 宇宙의 作用원리가 人體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人體의 모든 기능과 變化를 陰陽과 五行의 법칙, 즉 宇宙 萬物의 變化 原理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는 개념은 既存의 內經醫學的 觀點에서 生理와 病理를 關通하고 있으며 診斷과 治療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人間은 自然에 順應해야 하는 것이 健康을 유지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질병을 예방하고 健康을 지키는 것은 內經醫學에서 自然界의 變化에 逆行하면 疾病이 발생한다고 보는 自然順應的 養生論으로 발전하였다.¹⁴⁾

9) 上揭書. p.15.

10)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韓醫學大辭典, 東洋韓醫學研究員出版部. 1989. p.306. “中醫學에 있어 疾病을 治療하는 하나의 學說, 人體와 外部 環境의 統一性을 중시하여 自然의 變化가 人體生理에 影響을 미친다고 봄”

11) 王冰. 上揭書. p.9.

12) 上揭書. p.34.

13)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 531-532.

7) 金鍾烈. 東西醫學 比較研究. 癸丑文化社. 1994. p.47.

8) 王冰. 黃帝內經素問. 大成文化社. 1994. p.179.

한편 ‘陰陽五行學說’은 東洋哲學의 기본 思想으로 陰陽은 『易經』의 卦爻에서 최초로 나타나고 五行은 『尙書 洪範』의 五行說에서 최초로 나타나며 『黃帝內經』에 이르러 醫學의 生理, 病理의 원칙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⁵⁾ 실제로 陰陽五行은 天文, 地理, 國家의 統治 등에 두루 이용하는 東洋 特有的 哲學 思想이다. 醫學에 있어서도 人體가 宇宙 萬物의 變化 法則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는 가정 아래 理論的, 臨床的으로 陰陽五行 思想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말하자면 陰陽五行 思想은 內經醫學에 있어서 人體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藏象論은 人體의 臟腑를 五臟과 六腑로 나누고 그들의 生理와 病理를 陰陽五行의 關係를 기초로 하여 설명하고 예측한다. 藏象論의 ‘象’이라는 말은 실제의 臟器의 모습과 기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體表로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 臟腑의 모습과 기능을 살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藏象論은 五臟을 중심으로 臟腑의 조직을 分別하고 연관하여 다섯 가지의 계통으로 구성하여 六腑 및 五官, 五體, 五華 등 臟腑와 조직을 分別하고 연관짓는다. 즉 人體의 外部 象徴을 통하여 人體 臟腑의 生理機能, 病理變化 및 相互關係를 찾게 된다.¹⁷⁾ 이러한 분류를 통해 醫學의 기본적인 목표, 다시 말해 人體 生理를 설명하고 病理를 이해하며 疾病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理論的 背景은 陰陽 五行의 原理에 두고 있는 것이다.

2) 四象醫學의 本體觀과 人間觀

四象醫學의 人間에 對한 觀點은 內經醫學의 自然順應的인 天人相應의 觀點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壽世保元性命論』에서는 人間을 ‘天人性命’이라는 本體的 觀點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天은 人間을 중심으로 한 外部 環境的인 조건이고 人은 人間의 당위적 조건이며 性命은 慧覺과 資業으로 설명되며 이를 知行으로 실천하여 道德이 된다고 하였다.¹⁸⁾ 이는 四象醫學의 人間觀이

性命論的, 知行論的인 바탕을 가지고 있으며, 天人相應의 관계보다는 人間의 主體的이고 自律的인 입장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四象醫學의 人間觀은 事心身物이라는 四象構造의 本體論 안에서 人間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周易繫辭傳』에서 四象은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¹⁹⁾이라 하여 八卦로 분화해 가는 중간 과정의 하나이지만 『格致藁反誠箴』에서는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 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라 하여 四象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실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格致藁儒略』에서는 “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 一物止也 一身行也 一心覺也 一事決也 勤以止也 能以行也 慧以覺也 誠以決也 萬物居也 萬身群也 萬心聚也 萬事散也...”²⁰⁾라 하여 事心身物의 의미와 상호 關係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東武에게 있어 四象은 宇宙의 구성적 요소이며 本體로서 인식되는 개념이다. 나아가 事心身物의 物象은 단독적 독립 존재가 아닌 太極으로서의 心和 兩儀로서의 心身を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곧 宇宙 萬物의 존재방식이 四象이며 人이 宇宙에 귀속되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內經醫學에서의 ‘天人相應’과 四象醫學의 本體觀인 ‘事心身物’의 차이는 人間과 人間을 둘러싸고 있는 宇宙 萬物의 존재원리와 人間이 宇宙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天人相應의 天은 天地 즉 宇宙를 말하는 것이고 人間은 그러한 宇宙의 변화규율에 따라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18) 李相基, 宋正模, 四端論에 나타난 人間關係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7;9(1):207

19) 蕭元, 周易大辭典, 一中社, 1991, p. 157.

20) “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 一物止也 一身行也 一心覺也 一事決也 勤以止也 能以行也 慧以覺也 誠以決也 萬物居也 萬身群也 萬心聚也 萬事散也 仁以居也 義以群也 禮以聚也 智以散也 物萬也 身一也 心一也 事萬也 萬事大也 一心小也 一身近也 萬物遠也 治平大也 格致小也 誠正近也 修齊遠也 貌言視聽事四端也 辨思問學 心四端也 屈放收伸 身四端也 志膽慮意 物四端也 心應事也 博而周也 事湊心也 察而恭也 身行物也 立而敬也 物隨身也 載而效也”

14) 宋正模, 上揭書, p.10.

15) 金完熙,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5, p.28.

16) 宋正模, 上揭書, p.8.

17) 朴贊國 編著, 藏象學, 成輔社, 1992, p.66.

그러나 事心身物에는 이미 天地라는 개념은 없고 天地가 아닌 事物로서 존재함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天地의 개념이 人間이 그 變化規律에 따르는 宇宙의 개념이라면 事物의 개념은 人間이 認識하고 解釋하는 宇宙로서의 事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事物은 곧 그 존재 기반이 心身에 있으며 心身 또한 事物에 존재 기반이 있다. 事物이란 人間이 인식하고 생활하는 환경적 제반 요소이며 人間의 自律意志와 自律行動에 의해 파악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四象의 本體的 構造 안에서의 人間에 대한 考察은 性命에서 시작하는 바, 四象醫學의 性命論的 人間觀은 『草本卷』에 최초로 기술되어 있다. 『草本卷原人第一統』에 “天生萬民 性以知行 萬民之生也 有知行則生 無知行則死 知行者德之所由生也 天生萬民 命以衣食 萬民之生也 有衣食則生 無衣食則死 衣食者道之所由生也”라 하여 性과 命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本質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知行과 衣食, 道와 德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知行欲其兼人 衣食欲其潔己 知行積小者薄德之謂也 衣食貪濫者悖道之謂也”라 하여 知行은 德이 나오는 바탕이므로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것이고 衣食은 道가 나오는 바탕이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수양하는 것이라 하였다. 知行과 衣食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儒學의 觀點에서의 修己와 治人の 德目を 말하는 것이고, 修己와 治人の 과정을 통해 道德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性命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東武가 추구하는 인간의 自我完成일 것이다. 이러한 性命論的 人間觀은 東武의 人間觀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性命에 대한 개념은 『周易』과 『中庸』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周易乾卦』에는 “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太和 乃利貞”²¹⁾이라 하였고 『周易繫辭傳』에서는 “昔者聖人之作易也 …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以至於命”, “昔者聖人

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²²⁾라 하여 ‘性命’은 天賦받는 것이며 그 이치를 順하는 것을 易을 지은 목적이라 하였다. 『中庸』에서는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라 하여 하늘로부터 命 받은 것을 性이라 하고 性을 따르는 것을 道라 하였다.²³⁾ 여기에서 性이란 하늘로부터 받는 命수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性理學에서는 이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人間은 태어날 때 性뿐만 아니라 命도 함께 받는다 하여 性과 命을 대등한 待對的 關係로 설정하여 人間의 본질을 論한 것은 東武의 독특한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性命論的 人間觀은 『壽世保元』에 이르러 性을 ‘慧覺’이라 하여 ‘仁義禮智’, ‘忠孝友悌’와 같은 諸般百善이 이에 해당되며 德이 나오는 바탕이라 하였고 命을 ‘資業’이라 하여 ‘士農工商’, ‘田宅邦國’과 같은 諸般百用이 이에 해당되며 道가 나오는 바탕이라 하여, 누구나 자기의 慧覺과 資業을 잘 닦으면 道德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⁴⁾ 『草本卷』에서 보였던 知行과 衣食이라는 개념이 『壽世保元』에 이르러 慧覺과 資業이라는 개념으로 다소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본질적 내용은 동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性命論的 人間觀은 “知行積則道德也 道德成則仁聖也 道德 非他 知行也 性命 非他 知行也”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知行論的 人間觀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 설정으로 보인다.

東武의 知行論은 朱子의 先知後行論이나 陽明의 知行合一論과는 그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知와 行은 동시에 실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

22) 蕭元. 上揭書. p.569.

23)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上揭書. p.62

24) “天生萬民 性以慧覺 萬民之生也 有慧覺則死 慧覺者德之所由生也 天生萬民 命以資業 萬民之生也 有資業則生 無資業則死 資業者 道之所由生也 仁義禮智 忠孝友悌 諸般百善 皆出於慧覺 士農工商田宅邦國 諸般百用 皆出於資業 慧覺 欲其兼人而有教也 資業 欲其兼己而有功也 慧覺私小者 雖有其傑 巧如曹操而不可爲教也 資業橫濫者 雖有其雄 猛如秦王而不可爲功也 好人之善 而我亦知善者 至性之德也 惡人之惡 而我必不行惡者 正命之道也 知行 積則道德也 道德 成則仁聖也 道德 非他 知行也 性命 非他 知行也”

21) 蕭元. 上揭書. p.569. 朱子は 이를 <本義>에서 ‘물건이 받은 것은 性이라 하고 하늘이 부여한 것은 命이라 한다’로 註解하였다.

지하고 있으며²⁵⁾, 四象哲學의 중요한 귀결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格致彙獨行篇』에 “惻隱之心 出於肺 辭讓之心 出於脾 羞惡之心 出於肝 是非之心 出於腎 是故 凡人之有肺脾肝腎者 不修則己 若修之則 皆懿德也”라 하고 “四聽之達 出於耳 四目之明 出於目中禮之言 出於口 中禮之貌 出於鼻 是故 凡人之有耳目口鼻者 不修則己 若修之則 皆善才也”라 하여 四端之心的 懿德과 善材가 肺脾肝腎과 耳目口鼻에서 나옴을 제시하였고, 同篇에 “人之慾 出於志意魂魄 人之私 出於屈伸動靜”이라 하고 “大人之志意魂魄 以治國平天下 爲心故 其精神氣血 深遠廣大也 細人之志意魂魄 以富家貴身 爲心故 其精神氣血 淺近狹小也 大人之屈伸動靜 以誠心敬身 爲身故 其身首股肱 中規矩準繩也 細人之屈伸動靜 以放心懶身 爲身故 其身首股肱 不中規矩準繩也”라 하여 人間의 私慾 또한 心身の 志意魂魄과 屈伸動靜에서 비롯됨을 제시하였다. 이는 東武의 實踐의 知行論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東武의 知行論은 觀念的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人間의 心身構造와 연관된 구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草本券原因第二統』에 “人之臟氣 內存精靈 外應事物”이라 하여 사람의 臟氣는 단순히 장기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精靈(心身)을 보존하고 밖으로는 사물에 應하는 관계임을 밝히고, 『草本券原因第一統』에 “肺知事務 脾知交遇 肝知黨與 腎知居處, 肺行籌策 脾行謀猷 肝行材幹 腎行便宜”라 하여 臟腑가 밖으로 知行의 관계로 드러남을 말하고 있다. 또한 『壽世保元性命論』에 人身의 全面인 頤臆臍腹은 知를 행하는 것으로, 後面인 頭肩腰臀은 行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항상 私心과 怠心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⁶⁾

이러한 東武의 知行論은 體質的 知行論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性情의 체질적 관리방법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壽世保元四端論』에서 “天下喜怒哀樂之暴動 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知人不明也”라 하여 知行의 不修는 喜怒哀樂의 暴動浪動을 야기함을 말하였고, “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 喜怒哀樂已發而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라 하여 性情의 中절을 통한 體質的 知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 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 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 有浪喜深樂 不可不戒”라 하여 太陽人은 暴怒와 深哀를, 少陽人은 暴哀와 深怒를, 太陰人은 浪樂과 深喜를, 그리고 少陰人은 浪喜와 深樂을 警戒하라 하였다. 그리고 『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 “太陽人 恒戒怒心哀心 少陽人 恒戒哀心怒心 太陰人 恒戒樂心喜心 少陰人 恒戒喜心樂心 如此則必無不壽”라 하여 性情의 中절을 통한 知行의 방법이 養生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內經醫學과 비교해 본다면, 內經醫學이 道家的 입장에서의 自然順應의 養生論에 바탕을 두었다면 四象醫學은 儒家的 입장에서의 實踐主義的 知行論에 바탕을 둔 體質醫學의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四象醫學의 人間觀은 事心身物이라는 四象構造 안에서 人間에 대한 규정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人間觀을 통해 性命論의 人間과 知行論의 人間, 그리고 體質論의 人間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四象醫學의 臟腑에 대한 觀點도 이를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四象 臟腑理論의 特徵

1) 四象 本體論과 臟腑

四象은 『格致彙反誠箴』에 事心身物로 정의하고 있고, 四臟은 『壽世保元四端論』에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象也”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는 四象醫學의 臟腑論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肺脾肝腎’이라는 四臟의 개념적 근거가 되고 있다.

25) 宋正模, 高炳熙. 性命論을 중심으로 한 이제마의 四象觀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0;2(1):57.

26)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上揭書. p.76-79.

『壽世保元性命論』에서 볼 수 있듯이²⁷⁾ 四象의 本體 構造는 性命論에서 ‘耳目鼻口’, ‘肺脾肝腎’, ‘頷臆臍腹’, ‘頭肩腰臀’ 등의 현상적 기능구조²⁸⁾로 나타나고 있다.

四臟의 四象으로서의 정의는 이러한 本體論의 관점을 臟腑論에 결합시킨 것으로서 四象 臟腑理論의 形成 基礎가 되고 있다.

또한 『壽世保元臟腑論』에 四臟인 肺脾肝腎과 四腑인 胃脘·胃·小腸·大腸을 四焦에 배속 시킴으로써²⁹⁾ 四象本體論에는 上·中上·中下·下라는 위치적 개념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四象 臟腑論에서의 이러한 위치적 개념은 直立하는 인간의 특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藏象論과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四象 臟腑論은 이러한 四象 本體論에 입각한 四物類의 要約방법에 의해 肺脾肝腎이라는 四臟을 軸으로 ‘四黨’을 설정하고 人體 生理機能을 수행하기 위한 연관구조를 설정하였다. 즉 입을 통해 들어간 水穀의 대사과정에서 형성된 溫熱涼寒의 네 가지 기운에 따라 津膏油液과 賦膜血精(神氣血精)이라는 기본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들의 기능과 작용에 따라 胃脘·胃·小腸·大腸의 四腑와 頭手腰足, 頷臆臍腹, 皮筋肉骨, 前四海와 後四海 등이 형성되기도 하고 滋養을 받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人體의 構造 및 기능요소는 四物類의 要約方法에 의하여 각각 ‘肺黨·脾黨·肝黨·腎黨’으로 귀납, 분류된 것으로 이를 ‘四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四黨은 既存의 藏象論에서의 五行에 의한 配屬 原理와는 다른 것으로 五行의 配屬이 각 속성의 내용들간의 일관된 生理的 관계로 이루어

Table 1. Classification of Sadang(四黨)

事	上焦	肺	胃脘	耳	舌	頭腦	皮毛
心	中上焦	脾	胃	目	兩乳	背脊	筋
身	中下焦	肝	小腸	鼻	臍	腰脊	肉
物	下焦	腎	大腸	口	前陰	膀胱	骨

져있다가 보다는 五行의 歸類에 의한 배속관계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四黨은 水穀의 대사라는 生理 機能的 체계 아래 형성된 것으로 機能的 關係와 上下, 前後, 內外를 망라하는 構造的 關係를 함께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것은 人間의 性情과 心慾이 作用하는 人性論的 개념까지 결합된 四象 臟腑理論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³⁰⁾.

四黨의 四物類의 분류를 보면 각각을 事心身物에 대응시키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대응이 아닌 각 四臟과 그를 중심으로 한 四黨이 수행하는 機能과 주된 氣의 속성을 事心身物의 특성으로 分類하여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人體의 上部에서 下部로의 위치에 따라 事에서 物의 속성을 갖게 되며, 外에서 內로 위치함에 따라, 가장 陽的인 氣에서 陰的인 氣로의 변화에 따라 역시 事에서 物로의 속성을 가지게 된다. 總體的으로 四黨이라는 기능계가 각각 事心身物의 인 위치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肺黨은 水穀의 가장 陽化된 氣인 溫氣를 대사하며 그 機能體系를 이루고 있으며 위치적으로 人體의 가장 上部와 外側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餘他的 黨 역시 이러한 本體論의 기능과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人體의 구조와 기능이 事心身物의 本體論의 구조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로써 『格治藁』에서 제시된 事心身物의 本體觀이 醫學的인 원리로서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四象醫學의 本體論의 구조와 四物類의 要約方法은 四象人의 藥物構成과 方劑에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保健省 東武遺稿』³¹⁾에 “四藥之於四臟也 馨歸於肺 臭歸於脾 液

27)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頷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28)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上揭書. p.91.

29) “肺部位 在佳頁下背上 胃脘部位 在領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脾部位 在臍 胃部位 在膈 故臍膈之間 謂之中上焦 肝部位 在腰 小腸部位 在臍 故腰臍之間 謂之中下焦 腎部位 在腰脊下 大腸部位 在臍腹下 故脊下臍下以下 謂之下焦”

30)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上揭書. p.94.

歸於肝 味歸於腎”이라 하여馨은 肺로, 臭는 脾로, 液은 肝으로, 味는 腎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馨臭液味 역시 事心身物의 四物類의인 속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馨臭液味에 관한 연구는 아직 완전히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藥物의 속성에 대한 四象의 설명방법으로 東武가 고민하였던 시각임을 알 수 있는 개념이다. 그것은馨臭液味라는 本質의 속성 자체가 事心身物의 四物類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四象醫學의 本體論은 그 자체가 가지는 새로운 철학적 개념의 설정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宇宙의 속성과 宇宙에 能動的 存在로 살아가는 人間의 속성 모두를 現象의으로 깊이 고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醫學의으로도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人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2) 性情과 臟腑

‘性’과 ‘情’은 『中庸』의 “喜怒哀樂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에서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는 것³²⁾으로 東武는 이러한 性과 情의 개념을 獨創의으로 새롭게 설정하여 耳目鼻口가 天機를 察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自然的 性品인 性과 肺脾肝腎이 人事를 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表出的인 性品인 情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醫學의意味와 價値를 가지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性과 情의 개념은 『草本卷』에서 그 개념의 형성과정을 살필 수 있다. 『草本卷原人第二統』에 “太陽之性氣 若進之而又靜之則非但聞見博也 威儀亦愼也 非但肺氣抑有餘也 肝氣亦補不足也 太陰之性氣...”³³⁾이라 하여 四象人의 性氣

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性氣의 개념은 『壽世保元擴充論』에서 제시된 四象人의 性氣와 情氣에 대한 개념의 초보적 설정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性氣와 知行의 요소(聞見, 威儀 등), 그리고 臟器의 有餘 不足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性’의 의미도 性品, 性質이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性이 臟腑氣의 有餘와 不足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草本卷原人第三統』에 “健剛柔順 性理之四偏也 喜怒哀樂 情欲之四偏也 性理之偏行之而察中焉則求也 情欲之偏之而節焉則得也...”³⁴⁾라 하여 ‘性理’와 ‘情欲’에 대한 中庸을 말하고 있는데, 앞선 原人二統의 ‘性氣’ 또는 ‘性’의 개념에서 ‘性理’와 ‘情欲’의 개념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喜怒哀樂’을 情欲의 四偏이라 하고 ‘健剛柔順’을 性理의 四偏이라 하여 喜怒哀樂은 情欲의 次元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同篇에 “怒極者 怒之不勝其忿而悲哀動中則 肝魂亂也 喜極者 ... 是故 善養肺者 戒貪欲而寬其衣則 神清而意豁也 善養脾者...”³⁵⁾라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養肺를 잘하기 위해서는 貪慾을 경계하고, 養脾를 잘하기 위해서는 喜好를 경계하고 養肝을 잘하기 위해서는 嗔怒를, 養腎을 잘하기 위해서는 勇敢을 경계하여야 한다³⁶⁾고 하였다. 이는 喜怒哀樂의 極이 四臟의 病理를 유발함과 그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내용이다.

31) 李濟馬 著, 梁병무, 차광석 譯. 國譯韓醫學大系 15호. 海東出版社. 1999. p.159.

32)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上揭書. p.80.

33) “太陽之性氣 若進之而又靜之則非但聞見博也 威儀亦愼也 非但肺氣抑有餘也 肝氣亦補不足也 太陰之性氣 若靜之而又進之則非但行檢成也 知慧亦密也 非但肝氣抑有餘也肺氣亦補不足也 少陽之性氣 若舉之而又處之則非但制度審也 度量亦明也 非但脾氣抑有餘也 腎氣亦補不足也 少陰之性氣 若處之而又舉之則非但功績至也 經綸亦足也 非但腎氣抑有餘也 脾氣亦補不足也”

34) “健剛柔順 性理之四偏也 喜怒哀樂 情欲之四偏也 性理之偏行之而察中焉則求也 情欲之偏之而節焉則得也 欲求性理之偏者 富貴顯達雖則求之而不可以汲汲也 貧賤困窮雖則達之而不可以戚戚也 情欲之偏者 財權酒色雖則難節 而不可以不節也 語謀行正雖則難正而不可以不正也”

35) “怒極者 怒之不勝其忿而悲哀動中則 肝魂亂也 喜極者 喜之長往不返而逸樂無已則 脾靈亂也 哀極者 哀之極渴瘋思而恐慎守失則 腎志亂也 樂極者 樂之必充侈心而喜嗜無節則 肺意亂也 是故 善養肺者 戒貪欲而寬其衣則 神清而意豁也 善養脾者 戒喜好而直其謀則 氣雄而魄聳也 善養肝者 戒嗔怒而閑其行則 血化而魂往也 善養腎者 戒勇敢而安其所則 精足而志充也”

36) “是故 善養肺者 戒貪欲而寬其衣則 神清而意豁也 善養脾者 戒喜好而直其謀則 氣雄而魄聳也 善養肝者 戒嗔怒而閑其行則 血化而魂往也 善養腎者 戒勇敢而安其所則 精足而志充也”

역시 同篇에 “太陽人 未怒前 預備暴怒則 怒易安也 少陰人 未喜前 … 太陽人少陽人 深警哀怒之過度 而祇可少引喜樂之不及 而不必大做喜樂事而強樞之也 若強樞喜樂則 喜樂不出於其情 而欲心動 而哀怒益偏也 太陰人少陰人 …”³⁷⁾라 하여 四象人의 哀怒喜樂에 대한 豫防의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난 『草本卷』의 性情에 대한 醫學的 인식은 『壽世保元』에 이르러 보다 완성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 『壽世保元·四端論』에서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過多則下焦傷 下降之氣過多則上焦傷”이라 하여 性情이 陰陽의인 氣의 昇降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上昇하는 氣와 下降하는 氣로 分類하여 각각이 病理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同篇에서 “頻起怒而頻伏怒 則腰脇頻迫而頻蕩也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脇迫蕩不定 則肝其不傷乎 … 屢得樂而屢失樂 則背暴揚而暴抑也 背者 肺之所住着處也 背抑揚不定 則肺其不傷乎”³⁸⁾이라 하고 역시 同篇에서 “哀怒之氣順動 則發越而上騰 喜樂之氣順動 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陰也 順動則順而下降 哀怒之氣逆動 則暴發而並於上也 喜樂之氣逆動 則浪發而並於下也 上升之氣逆動而並於上 則肝腎傷 下降之氣逆動而並於下 則脾肺傷”이라 하여 哀怒喜樂의 順動 및 逆動의 개념과 그 作用을 설명함으

로써 性情의 升降의 속성의 차이와 四臟과 人體部位에 대한 病理的인 作用에 대해 四象의 人體構造 아래 一貫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四象人의 臟腑의 大小를 비롯한 體質의 偏差를 가져오게 하는 原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어 『壽世保元·擴充論』에서는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 而哀衆人之相欺也 哀性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 而怒別人之侮己也 怒情非他 怒也 …”³⁹⁾이라 하여 性과 情을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性情이 四象人에게 있어 각기 다른 偏差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性은 耳目鼻口의 觀於天하는 상태에서의 聽視嗅味 자체이며 情은 肺鼻肝腎의 立於人할 때 발생하는 卽發的 감정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⁴⁰⁾ 이러한 性情의 편차는 四象人의 臟腑와 人體構造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四象醫學에서는 이렇듯 性情의 개념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 內經醫學의 ‘七情’이나 性理學의 ‘四端七情’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⁴¹⁾ 內經에서의 七情은 感情 또는 情動의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性理學의 七情은 仁義禮智의 四端에 대비되는 氣質로서의 情欲을 의미한다면 四象醫學에서는 性으로서의 喜怒哀樂과 情으로서의 喜怒哀樂을 같은 비중으로 대비시켜 제시한 것이다.

『壽世保元·擴充論』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性으로서의 喜怒哀樂은 自然的 性品, 즉 天性으로서 耳目鼻口가 天機를 聽視嗅味하는 과정에서 드

37) “太陽人 未怒前 預備暴怒則 怒易安也 少陰人 未喜前 預備暴喜則 喜易安也 太陰人 未樂前 預備暴樂則 樂易安也 少陽人 未哀前 預備暴哀則 哀易安也 蓋未怒前 預備暴怒之偏已 怒時坐思不必過怒之理 此術最好喜哀樂做此 太陽人 少陽人 深警哀怒之過度 而祇可少引喜樂之不及 而不必大做喜樂事而強樞之也 若強樞喜樂則 喜樂不出於其情 而欲心動 而哀怒益偏也 太陰人 少陰人 深警喜樂之過度 而祇可少引哀怒之不及 而不必大做哀怒之事而強樞之也 若強樞哀怒則 哀怒不出於其情 而欲心動 而喜樂益偏也”

38) “頻起怒而頻伏怒 則腰脇頻迫而頻蕩也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脇迫蕩不定 則肝其不傷乎 乍發喜而乍收喜 則胸腋乍闊而乍狹也 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腋闊狹不定 則脾其不傷乎 忽動哀而忽止哀 則脊曲忽屈而忽伸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脊曲屈伸不定則 腎其不傷乎 屢得樂而屢失樂 則背暴揚而暴抑也 背者 肺之所住着處也 背抑揚不定 則肺其不傷乎”

39)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 而哀衆人之相欺也 哀性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 而怒別人之侮己也 怒情非他 怒也 少陽人 怒性宏抱 而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 而怒衆人之相侮也 怒性非他 視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 行於事務 而哀別人之欺己也 哀情非他 哀也 太陰人 喜性廣張 而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 察於人倫 而喜衆人之相助也 喜性非他 嗅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 而樂別人之保己也 樂情非他 樂也 少陰人 樂性深確 而喜情促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 而樂衆人之相保也 樂性非他 味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 行於黨與 而喜別人之助己也 喜情非他 喜也”

40) <壽世保元 性命論>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頷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腎 行其行也”

41)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上揭書. p. 80.

러나는 것으로 이것이 極에 달했을 때 情으로서 動하게 된다. 情으로서의 哀怒喜樂은 肺脾肝腎이 人事를 행할 때 드러나는 哀怒喜樂의 表出的 感情을 말한다.⁴²⁾ 哀怒喜樂이 性으로서 順動하게 되면 臟을 더욱 盛하게 하고 情으로 逆動하면 臟을 더욱 削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四象人의 각 臟腑의 大小에 그 영향을 미치게 한다. 性情의 偏差에서 起因한 大小의 原理를 가지는 臟腑는 그대로 四象體質 理論의 근거가 되며 이것은 여타의 다양한 體質論이 東洋醫學의 生理學的 根幹인 臟腑를 중심에 두고 전개되고 있지 않은 점과는 구별되는 四象 體質理論의 특징이라 하겠다.

性情을 중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醫學的인 면에서 중시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西洋醫學에서 心身醫學(Psychosomatic Medicine)⁴³⁾이 대두되는 20세기 이후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性과 情을 구분한 것은 마음의 상태가 人體에 미치는 영향을 醫學的 觀點에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交感神經系와 副交感神經系로 이루어진 自律神經系의 拮抗作用에 의하여 유기체의 恒常性의 유지를 東洋醫學의 陰陽의 개념으로 보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性理學의 性理와 情氣의 발현을 大腦皮質과 邊緣系, 그리고 視床下部의 自律神經의 軸에 의한 과정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⁴⁴⁾ 실제로 내외환경 요인의 변화가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는 시상하부를 경유하여 내분비계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적절한 반응을 유지하게 된다.⁴⁵⁾ 그러나 실제로 四象醫學에서의 性情은 이러한 心身醫學이나 단순한 神經系의 작용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性은 人間이 外部, 즉

世界를 대하는 방식이라 설명할 수 있고, 情은 外部의 世界로부터의 刺戟에 대하여 對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人間이 外部와의 상호관계 속에서의 존재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性情은 심신의 학의 마음상태보다 훨씬 더 包括的이고 綜合的이다. 심신의학에 있어서의 심(Psycho-)은 주로 患者의 治療에 있어 病理的으로 作用하고 있는 心理的 要因들을 선택하여 病理 要因으로 고려하거나 치료의 대상 안에 포함시키는 選擇的, 部分的 마음상태라고 할 수 있는 반면 四象醫學에서의 性情은 人間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體質에 따라 다르고 生理的인 臟腑의 大小에 관여하고 있고 病理的으로도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3) 臟腑의 構造와 機能

臟腑라고 하는 것은 醫學的으로 實體的인 개념이다. 그러나 解剖學을 통한 구조적 지식의 축적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機能이라는 면이 더욱 중시되는 것은 四象醫學의 臟腑論도 예외는 아니지만, 四象醫學의 臟腑論은 臟腑의 機能과 構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草本卷原人第五統』에서 “脾腎之體形 有質而無葉 掌內修之柄者宜乎 全其專一之穀子也 肝肺之體形 有葉而無質 持外御之勢者宜乎 派其四散之議像也 肺腎之運轉 一引而一縮 任呼吸之貴者宜乎 經其終始之貫串也 脾肝之運轉 一收一放 操唱和之機者宜乎 緯其繁歇之範圍也”라 하여 脾腎의 형태와 肝肺의 형태를 質과 葉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며 引縮과 收放의 機能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質과 葉이라는 것은 機能을 발현하는 형태에 대한 표현이며 藏象論의 ‘實而不能滿’, ‘滿而不能實’이라는 臟과 腑의 형태에 대한 표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同篇에서 “脾以納腎以出 脾腎者出納水穀道之府庫也 肝以充肺以散 肝肺者散充氣道之門戶也”라 한 것은 이러한 四象 臟腑理論의 機能과 構造와의 有機的인 결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壽世保元四端論』의 “肺以呼 肝以吸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腎以出 腎脾者 出納水穀之府庫也”라는 四象 臟腑理論의 기본 개념을 含蓄的으로 제시하는 核心內

42)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上揭書. p. 80.

43) 身體의 疾患을 정신적 원인과 육체적 현상을 결부시켜 생각하며 환자의 성격과 성장과정, 인간관계, 정신력 등의 총체적 관심을 갖는 의학.

44) 朴錫璉. 全體性醫學의 時代. 信興出版社. 1979. pp.35-47.

45) 金正鎮. Physiology. 가톨릭의대생리학교실. 高文社. 1994. p.460.

容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脾腎과 肝肺의 본질적 형태뿐만 아니라 水穀과 氣液이라는 『壽世保元』의 중요한 醫學論의 개념까지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며 有質而無葉과 有葉而無質은 臟腑의 기능적 형태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水穀의 대사과정과 결부 지어 腑에 대한 考察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壽世保元臟腑論』에 “胃脘 通於口鼻 故水穀之氣 上升也 大腸 通於肛門 故 水穀之氣 下降也 胃之體 廣大而包容 故 水穀之氣 停畜也 小腸之體 狹窄而屈曲 故 水穀之氣 消導也”라 하고 同篇에 “水穀 自胃脘而入于胃 自胃而入于小腸 自小腸而入于大腸 自大腸而出于肛門者 水穀之都數 停畜於胃而薰蒸爲熱氣 消導於小腸而平淡爲涼氣 熱氣之輕清者 上升於胃脘而爲溫氣 涼氣之質重者 下降於大腸而爲寒氣”라 하여 四腑의 형태의 설명에 기능을 덧붙이고 있으며 四腑의 機能을 水穀의 대사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四象醫學의 臟腑理論은 臟腑와 그 관련된 개념들에 대하여 위치와 부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壽世保元臟腑論』에 “肺部位 在佳頁下背上 胃脘部位 在頷下胸上 故 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脾部位 在膻 胃部位 在膈 故 膻膈之間 謂之中上焦 肝部位 在腰 小腸部位 在臍 故 腰臍之間 謂之中下焦 腎部位 在腰脊下 大腸部位 在臍腹下 故 脊下臍下以下 謂之下焦”라 하였다. 이는 四臟의 위치와 四腑의 위치를 四焦로 구분하여 상하와 전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藏象論은 기능을 爲主로 한 臟의 象에 대한 설명이며 그 構造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적지 않다. 水穀의 대사과정을 중심으로 臟腑의 上下關係를 설명하는 것은 공통적이거나 藏象論에서는 平面的인 臟腑構造의 제시에 머무르고 있고 四象醫學은 上下와 前後를 언급하여 立體的인 人體 臟腑構造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각 臟腑의 개념과 위치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능을 위주로 臟腑를 설정하는 것은 內經醫學과 공통적이거나 內經醫學에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던 構造와 기능, 위치와의 상관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藏象論에서 三焦의 개념은 여러 학설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기능이나 대략적인 위치개념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그 정확한 위치나 臟腑와의 關聯性은 모호하여 후대의 여러 醫學的 論爭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⁴⁶⁾ 어떤 부분에서는 臟腑로서 어느 부분에서는 區域設定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四象醫學에서는 四焦의 정확한 해부학적 경계를 제시하였고 각각이 포함하는 人體內的 臟腑까지 제시하여 위치의 기능적 구획으로서의 개념을 밝히고 있으며 構造와 機能의 統一的인 四焦의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機能을 보는 기본적인 韓醫學的 시각에서 더 나아가 그 기능에 토대를 두고 臟腑의 구조와 기능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유기적인 필연성에 입각하여 동시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4) 基本 構成 物質과 臟腑

精, 神, 氣, 血, 津液은 韓醫學에 있어서 인체를 이루는 基本 構成 物質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시에 人體를 순환하며 臟腑 機能을 발현하고 臟腑에서 生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四象醫學에서도 이러한 基本 構成 物質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壽世保元臟腑論』에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腦海 腦海者 神之所舍也 腦海之腦汁清者 內歸于肺 濁滓 外歸于皮毛 故 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 水穀熱氣 ...”⁴⁷⁾라 하여 ‘津膏油液’과 ‘腦膜血精’이 水穀의

46) 金完熙.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5. p.85.

47)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腦海 腦海者 神之所舍也 腦海之腦汁清者 內歸于肺 濁滓 外歸于皮毛 故 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 水穀熱氣 自胃而化膏 入于臆間兩乳爲膏海 膏海者 膏之所舍也 膏海之清氣 出于目而爲氣 入于背脊而爲膜海 膜海者 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清者 內歸于脾 濁滓 外歸于筋 故 胃與兩乳目背脊筋 皆脾之黨也 水穀涼氣 自小腸而化油 入于臍爲油海 油海者 油之所舍也 油海之清氣 出于鼻而爲血 入于腰脊而爲血海 血海者 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清者 內歸于肝 濁滓 外歸于肉 故 小腸與臍鼻腰脊肉 皆肝之黨也 水穀寒氣 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爲液海 液海者 液之所舍也 液海之清氣 出于口而爲精 入于膀

溫熱涼寒之氣에서 기인함을 말하고 있다. 즉 四腑를 통과하는 水穀의 대사과정을 통해 基本 構成物質이 生成되고 循環하게 됨을 四象醫學의 生理 過程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同篇에 耳目鼻口의 天機를 살필 때 나오는 聽視嗅味之力和 肺脾肝腎의 人事를 행할 때 나오는 哀怒喜樂之力, 四腑의 上昇·停畜·消導·下降之力, 頭手腰足の 直伸·能收·寬放·屈強之力 등이 인체구조와 구성물질의 생성과 순환을 추동하고 있음을 말하였다.⁴⁸⁾ 이는 인간의 생명력이 생성과 순환에 작용함에 있어서 四象類型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內經醫學의 藏象論에 있어서의 物質論은 일관된 臟腑 生理 過程의 연장선에서 도출되고 있지는 않다. 臟腑에서 生成되며 동시에 臟腑와 人體를 滋養한다는 개념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의 內經醫學에서는 精, 神, 氣, 血, 津液 각각의 物質에 대한 설명도 분명한 개념의 규정 없이 混在되어 있으며 일정한 生理 過程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반면 四象醫學에 있어서의 基本 構成 物質은 水穀之氣의 일련의 대사과정에서 비롯하며, 이들의 생성과정도 津膏油液이라는 一次的 생성 물질과 臟膜血精이라는 二次的 물질로 생성과정에 따라 兩分되고, 이들 物質을 生成하고 循環하게 하는 것이 耳目鼻口의 힘, 四臟의 힘, 四腑의 힘, 그리고 頭手腰足の 힘이라는 四象類型的 작용력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津液의 개념이 四物類의 要約精神에 따라 津膏油液으로, 氣血의 개념이 神氣血精의 개념으로 정립되었고, 이들의 所藏 위치가 또한 四焦에 배속되어 四臟, 四腑의 기능과 구조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점 등은 藏象論에서 볼 수 없었던 四象 臟腑理論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표 2).

한편 『壽世保元臟腑論』의 末尾에 耳目鼻口는 반드시 深遠廣大하고 肺脾肝腎은 반드시 學問

思辨을 잘해야 한다⁴⁹⁾고 하는 설명은 이러한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의 力이 天機와 人事를 行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구조임을 암시하고 있는 바, 이는 四象哲學의 중요한 귀결중의 하나인 知行的 요소와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materials(物質) and Sadang(四象)

四象	四氣	四焦	四官	四腑	前四海	四臟	後四海	
事	溫	上焦	耳	胃脘	頷	津	肺 頭(頭腦)	臟(神)
心	熱	中上焦	目	胃	臆	膏	脾 肩(背脊)	膜(氣)
身	涼	中下焦	鼻	小腸	臍	油	肝 腰(腰脊)	血
物	寒	下焦	口	大腸	腹	液	腎 腎(膀胱)	精

5) 知行과 臟腑

四象醫學 내지 四象哲學은 궁극적으로 실천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四象醫學의 특성에 대해 自然哲學的 觀點에서, 四象哲學을 人間中心的 사고로 말미암아 외형적으로 강한 결정론적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의지를 통한 자기 보호와 자기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 반결정론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⁵⁰⁾

性命論에서 性命으로 제시된 人間이 慧覺과 資業을 통해 道德을 실현하고 이를 知行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四象醫學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주제인 知行論으로 귀결된다.

『草本券原人第一統』를 통해 知行에서 德이 나오기 위한 요소와 衣食에서 道가 나오기 위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으며 衣食의 道는 修己에 관계되어 있고 知行的 德은 治人に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⁵¹⁾ 또한 『草本券原人第二統』에

膀胱而爲精海 精海者 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清者 內歸于腎 濁滓 外歸于骨 故 大腸與前陰口膀胱骨 皆腎之黨也”

48)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上揭書. p.110-114.

49) “是故 耳必遠聽 目必大視 鼻必廣嗅 口必深味 耳目鼻口之用 深遠廣大 則精神氣血 生也 淺近狹小 則精神氣血 耗也 肺必善學 脾必善問 肝必善思 腎必善辨 肺脾肝腎之用 正直中和 則津液膏油 充也 偏倚過不及 則津液膏油 燻也”

50) 최종덕. 四象醫學으로 본 哲學의 自然觀. 四象醫學會誌. 1998;10(2):29-40.

51) “知行欲其兼人 衣食欲其潔己 知行積小者薄德之謂也 衣食貪濫者悖道之謂也”

는 修己治人이라는 道德이 관념만이 아닌 臟腑의 활동에 의존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四端之心이나 人間의 私慾이 肺脾肝腎과 耳目鼻口와 같은 人身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⁵²⁾ 나아가 『草本券原因第一統』에서 臟腑가 밖으로 知行의 관계로 드러남을 구체적으로 四臟과 연관지어 제시하고 있는데⁵³⁾ 이는 『壽世保元性命論』에서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로 제시된다.

四象 臟腑理論은 이러한 知行論의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壽世保元』全篇을 통해 알 수 있다. 『壽世保元性命論』에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頷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腎 行其行也”라 하여 四象 臟腑理論의 주요 현상적 기능구조가 知行을 실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人之頷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 養其性 然後 人皆可以 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腎之下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 立其命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不爲堯舜者 以此”라 하여 누구나 자신의 노력으로 知行을 실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어 『壽世保元四端論』에서는 性情的 조절을 통한 體質의 知行論을 말하고 있으며⁵⁴⁾ 『壽世保元擴充論』에서는 “太陰之頷 宜戒驕心… 少陰之臆 宜戒矜心… 太陽之臍 宜戒伐心… 少陽之腹 宜戒夸心…”⁵⁵⁾라 하였으며 이어 “少陰之頭 宜戒奪心… 太陰之肩 宜戒侈心… 少陽之腰 宜戒懶心… 太陽之腎 宜戒竊心…”⁵⁶⁾라 하여 四象人의 頷臆臍腹과 頭肩腰腎이

知行을 行함에 있어 체질별로 경계해야 할 조건들을 말함으로써 體質의 知行論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性命論으로부터 擴充論에 이르기까지의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을 비롯한 현상적 기능구조는 『壽世保元臟腑論』에 이르러 臟腑生理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知行論으로 제시되는데 “是故 耳必遠聽 目必大視 鼻必廣嗅 口必深味 耳目鼻口之用 深遠廣大 則精神氣血 生也 淺近狹小 則精神氣血 耗也 肺必善學 脾必善問 肝必善思 腎必善辨 肺脾肝腎之用 正直中和 則津液膏油 充也 偏倚過不及 則津液膏油 燦也”라 하여 耳目鼻口가 深遠廣大하여야 하고 肺脾肝腎은 學問思辨을 善行해야 하며 그 用이 正直中和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精神氣血이 生成되고 津液膏油가 充滿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心 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臆中 光明瑩徹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付 頷臆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이라 하여 心과 耳目鼻口, 肺脾肝腎, 頷臆臍腹, 頭手腰足이 갖추어야 하는 자세를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心이 一身의 主宰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四象醫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知行, 즉 性과 命의 실천은 그대로 臟腑 理論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편급된 性情的 中節과 道德의 知行的 실천은 臟腑의 건강을 가져오고 人體의 건강을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臟腑論의 生理와 病理가 人間의 道德과 그 實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既存 內經醫學의 藏象論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四象醫學은 倫理論의 醫學觀을 갖게 되는데 이는 知行的인 측면의 臟腑論에 根幹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道德의 實踐이라는 倫理的인 行爲, 즉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臟腑의 盛衰, 나아가 人間의 健康에 직접적인 影響을 준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東武의 倫理的 개념을 갖는

52) “問居處行身夫婦長幼等事有關疾病乎 曰人之臟氣 內存精靈 外應事物 爲酒色所傷者 既傷於酒色 又困於居處行身 所以受病甚酷”

53) “肺知事務 脾知交遇 肝知黨與 腎知居處 肺行籌策 脾行謀猷 肝行材幹 腎行便宜”

54) “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 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 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 有浪喜深樂 不可不戒”

55) “太陰之頷 宜戒驕心 太陰之臆 若無驕心 絕世之壽策 必在此也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絕世之經綸 必在此也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 少陽之腹 宜戒夸心 少陽之腹 若無夸心 絕世之度量 必在此也”

56)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此也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

人之威儀 必在此也 少陽之腰 宜戒懶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材幹 必在此也 太陽之腎 宜戒竊心 太陽之腎 若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

臟腑論은 『格致彙獨行篇』에서 四端之心이 肺脾肝腎과 耳目鼻口에서 기인함을 설명하는 것⁵⁷⁾과 人間의 私慾 또한 心身에서 비롯됨을 제시한 내용⁵⁸⁾에서 이를 알 수 있다. 心과 身을 함께 생각하는 人體에 대한 全一의 考察은 東西醫學을 莫論하고 있어왔으나 이렇듯 倫理的인 人間의 생각과 행동이 人體의 健康에 직결된다는 개념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總括 및 結論

四象醫學의 哲學的 背景은 人間을 중심으로 한 宇宙觀인 四象 本體論에 있다. 四象은 『格致彙反誠箴』에서의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 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實體로서 인식되고 있다. 四象, 즉 事心身物은 內經醫學에서의 人間이 하늘의 지배를 받는 自然順應의 天人相應의 關係가 아닌 人間이 中心이 되는 思想이다. 그리고 人間은 性과 命을 부여받고 이를 실천하는 知行的 存在로서의 人間이며, 天-地-人의 關係가 아닌 事物과 心身の 四象 本體的 關係가 그 실제이며 존재 방식이다. 따라서 內經醫學이 道家的 立場에서의 自然順應의 養生論에 바탕을 두었다면 四象醫學은 儒家的 立場에서의 實踐主義의 知行論에 바탕을 둔 體質醫學의 特性을 가짐을 알 수 있다.

四象醫學의 人體 生理에 대한 理論 역시 이러한 本體論의인 哲學 아래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生理 理論의 中心이 되는 臟腑理論 역시 동일한 醫哲學的 背景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哲學

的 背景을 바탕으로 四象醫學에서의 臟腑理論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四象醫學의 臟腑理論은 四象構造에서 출발한다. 四象의 本體的 構造 안에서 人間에 대한 考察은 性命에서 시작하며 이러한 四象醫學의 性命論의 人間觀은 性과 命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人間의 本質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知行과 衣食, 道와 德의 關係를 제시하였다. 人間은 태어날 때 性뿐만 아니라 命도 함께 받는다 하여 性과 命을 대등한 關係로 설정하여 人間의 本질을 論하고 있다. 四象醫學에서의 臟腑 역시 이러한 四象 本體構造에서 출발하고 있다. 周易에서는 四象이 八卦로 분화해 가는 中間者의 성격이지만 東武의 四象은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 실제적 요소이다. 이러한 구조적 關係는 四象醫學의 臟腑論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肺脾肝腎이라는 四臟을 軸으로 人體 生理機能을 수행하기 위한 연관구조, 즉 胃脘·胃·小腸·大腸의 四腑와 頭手腰足, 頷臆臍腹, 皮筋肉骨, 前後四海, 意慮操志 등 人體의 構造를 分類하여 構造와 機能의 統一의인 개념인 四黨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四黨은 既存의 藏象論에서의 五行에 의한 配屬 原理와는 다른 것으로 五行의 配屬이 각 속성의 내용들간의 生理的 關係가 일정하지 않은 반면 四黨은 水穀의 대사라는 일관된 機能的 체계 아래 형성된 것이며 機能的 關係와 上下, 前後, 內外를 網羅하는 構造的 關係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上部에서 下部로, 外部에서 內部로의 위치적 차이가 事心身物의 四物類의 속성의 차이를 그대로 지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이것은 人間의 性情과 心慾이 작용하는 人性論의 개념까지 결합된 四象 臟腑理論으로 발전하게 된다.

둘째 四象醫學의 臟腑理論은 性情의 개념이 중시된다. ‘性’과 ‘情’의 개념은 『中庸』의 “喜怒哀樂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에서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東武는 이러한 喜怒哀樂을 性과 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性情은 內經醫學의 ‘七情’이나 性理學의 ‘四端七情’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性으로서

57) “惻隱之心 出於肺 辭讓之心 出於脾 羞惡之心 出於肝 是非之心 出於腎 是故 凡人之有肺脾肝腎者 不修則已 若修之則 皆懿德也”, “四聽之達 出於耳 四目之明 出於目 中禮之言 出於口 中禮之貌 出於鼻 是故 凡人之有耳目口鼻者 不修則已 若修之則 皆善才也”
 58) “人之慾 出於志意魂魄 人之私 出於屈伸動靜”, “大人之志意魂魄 以治國平天下 爲心故 其精神氣血 深遠廣大也, 細人之志意魂魄 以富家貴身 爲心故 其精神氣血 淺近狹小也 大人之屈伸動靜 以誠心敬身 爲身故 其身首股肱 中規矩準繩也 細人之屈伸動靜 以放心懶身 爲身故 其身首股肱 不中規矩準繩也”

의 哀怒喜樂은 自然的 性品, 즉 天性으로서 耳目鼻口가 天機를 聽視嗅味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이것이 極에 달했을 때 情으로서 動하게 된다. 情으로서의 哀怒喜樂은 肺脾肝腎이 人事를 행할 때 드러나는 哀怒喜樂의 表出的 感情을 말한다. 哀怒喜樂이 性으로서 順動하게 되면 臟을 더욱 盛하게 하고 情으로 逆動하면 臟을 더욱 削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四象人의 각 臟腑의 大小에 그 영향을 미치게 한다. 性情의 偏差에서 起因한 大小의 原理를 가지는 臟腑는 그대로 四象 體質理論의 근거가 되며 이것은 여타의 다양한 體質論이 東洋醫學의 生理學的 根幹인 臟腑를 중심에 두고 전개되고 있지 않은 점과는 다른 四象體質理論의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四象醫學에 있어서의 性情은 심신의학에서의 마음상태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다. 심신의학에 있어서의 心(Psycho-)은 주로 환자의 치료에 있어 病理적으로 作用하고 있는 心理的 요인들을 선택하여 病理 요인으로 고려하거나 치료의 대상 안에 포함시키는 선택적, 부분적 마음상태라고 할 수 있는 반면 四象醫學에서의 性情은 人間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體質에 따라 다르고 生理的인 臟腑의 大小에 관여하고 있고 病理的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病理的인 면에서만 부분적으로 선택하는 대상이 아닌 臟腑的, 體質的 生理 차이를 설명하고 病理를 야기하는 全體的이고 根源的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體質的 臟腑의 大小와 生理, 病理的으로 나타나는 臟腑의 剩削이 性情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四象 臟腑理論은 性情論的인 臟腑論의 특징을 가진다.

셋째 四象醫學의 臟腑理論은 臟腑의 機能과 構造에 대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壽世保元 四端論』에 “肺以呼 肝以吸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腎脾者 出納水穀之府庫也”라 하여 脾腎과 肝肺의 본질적 형태뿐만 아니라 水穀과 氣液이라는 『壽世保元』의 중요한 醫學論의 개념까지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水穀의 대사과정과 결부 지어 腑에 대해서도 형태의 설명에 기능을 덧붙이고 있다. 또한 四象醫學의 臟腑

理論은 臟腑와 그 관련된 개념들에 대하여 위치와 부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壽世保元 臟腑論』에 “肺部位 在顛下背上 胃脘部位 在頷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와 같이 上下와 前後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 四焦와의 관계까지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臟腑와 관련된 物質論에 있어서도 水穀之氣의 대사과정에 따라 津膏油液이라는 一次的 생성 물질과 賦膜血精이라는 二次的 물질로 兩分하고 있으며 이들 物質을 生成하고 循環하게 하는 것이 耳目鼻口와 肺脾肝腎之力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進身 순환에 관여하는 耳目鼻口는 반드시 深遠廣大하고 肺脾肝腎은 반드시 學問 思辨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四象醫學의 臟腑論은 그 構造와 機能, 그리고 그들간의 物質 構成과 循環에 있어 統一的이고 有機的인 結合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四象이라는 機能構造로 구체화된다.

넷째 四象醫學의 臟腑理論은 知行的 要素를 중시한다. 四象醫學의 性命論의 人間觀은 『壽世保元』에 이르러 性を ‘慧覺’이라 하여 ‘仁義禮智’, ‘忠孝友悌’와 같은 諸般百善이 이에 해당되며 德이 나오는 바탕이라 하였고 命을 ‘資業’이라 하여 ‘土農工商’, ‘田宅邦國’과 같은 諸般百用이 이에 해당되며 道가 나오는 바탕이라 하여, 누구나 자기의 慧覺과 資業을 잘 닦으면 道德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知行論은 四象哲學의 중요한 귀결 중의 하나이며 窮極的인 문제로 볼 수 있다. 知行的 中節이 聖人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현실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四象醫學 또는 四象哲學의 現實的, 醫學的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東武의 知行論은 觀念的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人間의 心身構造와 연관된 구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壽世保元 四端論』에서는 性情의 조절을 통한 體質的인 知行論을 말하고 있으며 『壽世保元 擴充論』에서는 四象人의 頷臆臍腹과 頭肩腰臀이 知行을 行함에 있어 체질별로 경계해야 할 조건들을 말함으로써 체질적 지행론을 제시하였고, 『壽世保

元臟腑論』에서는 耳目鼻口의 用이 深遠廣大하
여야 하고 肺脾肝腎의 用이 正直中和할 것을 말하
고 이로 인해 精神氣血이 生成되고 津膏油液이 充
滿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이렇듯 편급된 性情의 中節과 道德의 知行的
실천이 臟腑의 건강을 가져오고 人體의 건강을
가져온다는 것은 四象 臟腑理論의 醫哲學的 重要
개념이다. 다시 말해 臟腑의 生理와 病理가 人間
의 道德과 그 實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는 既存 內經醫學의 藏象論과 구별되
는 특징적인 개념이며 四象醫學의 臟腑論이 갖고
있는 四象哲學의 精神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知行論의인 臟腑理論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四象醫學은 倫理論的 醫學觀을 갖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 서울 : 大星文化社. 1998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麗江出版社. 1994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四象體質科. 1999
4. 李濟馬, 格致藥. 전주: 又石大學教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1998
5.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6.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2;4(1):5-28.
7. Kenneth N. Anderson 외. Mosby's dictionary 4th Mosby United states of America. 1990
8. 金鍾烈. 東西醫學 比較研究. 서울: 癸丑文化社. 1994
9. 王氷.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成文化社. 1994
10.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韓醫學大辭典. 서울: 東洋韓醫學研究員出版部. 1989.
11.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2. 李相基, 宋正模. 四端論에 나타난 人間關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7;9(1):197-211.

13. 蕭元. 周易大辭典. 서울: 一中社. 1991
14. 金完熙.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15. 李廷燦. 四象醫學論. 서울: 木과土, 1999
16. 朴錫璉. 全體性醫學의 時代. 서울: 信興出版社. 1979
17. 金鍾元, 高炳熙.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0;2(1):100-102.
18. 金正鎮. Physiology. 가톨릭의대생리학교실. 서울: 高文社. 1994
19. 宋正模, 高炳熙. 性命論을 중심으로 한 이제마의 四象觀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0;2(1):57.
20. 崔宗덕. 四象醫學으로 본 哲學的 自然觀. 四象醫學會誌. 1998;10(2):29-40.
21. 黃義完.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1987.
22. 池圭鎔. 東武格治藥譯解. 서울: 永林社. 2001.
23. 임명진. 東醫壽世保元에서의 修行觀과 陰陽. 四象醫學會誌. 1997;9(1):169-179.
24. 金鎭成. 李濟馬의 宇宙論과 四象의 臟腑配屬의 妥當性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7;9(1):245-253
25. 四書五經-周易. 三星文化社. 서울: 1982
26. 宋一炳.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하나미디어. 1993
27. 李壽瓊, 宋一炳.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1999;11(1):63-77.
28. 崔昇勳. 韓方病理學. 서울: 一中社. 1997
29. 朴贊國.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30. 金完熙. 韓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2
31. 孫祥坤. 儒學者들의 心性情과 李濟馬의 性情氣에 對한 文獻적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1996;8(2):11-39.
32. 金恩叔. 四象臟腑論을 중심으로 한 東武의 陰陽觀. 四象體質醫學會誌. 1997;9(1):155-168.
33. 宋正模. 太少陰人의 處方이 스트레스誘發 白鼠의 自律神經機能에 미치는 影響. 四象體質醫學會誌. 1995;7(2):200-207.
34. 王琦. 中醫體質學. 서울: 圖書出版鼎談. 1999

35. 楊力. 周易과 中國醫學. 서울: 法人文化社. 1995

36. 李濟馬 著, 梁병무, 차광석 譯. 國譯韓醫學大系 15호. 서울: 海東出版社. 1999